

## 民·官 그리고 知識人 주도의 반부패운동 -중국 반부패소설의 주선율화, 통속화, 예술화를 중심으로-

Anti-corruption Movement of the public, the government and intellectuals  
-Focused on main melody, popularization and artistry of Chinese Anti-corruption Novel-

김 창 경(Kim, Chang Gyeong)\* · 안 승 웅(Ahn, Sueng Woong)\*\*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Chinese corruption issues focusing on the anti-corruption novel from cultural perspective, and analyzed the causes to promote anti-corruption novel from the three following reasons.

The first reason is Chinese governmental intention which tries to absorb a main melody culture of anti-corruption novel for the governmental propaganda of anti-corruption. As we know with the title of the anti-corruption novel, anti-corruption novel is closely related to the anti-corruption movement which was 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hinese government supported the creation of anti-corruption novel for the success of the anti-corruption movement. The second reason is the aesthetic demand by the public and the popularization of anti-corruption novel. The anti-corruption novel had a lot of factors that were the allure of the people's interest, the people's desire for resistance against the violence of power, and the easy topic and format for the public. The third reason is Chinese intellectual's participation in political issues and the achievement of anti-corruption novel. Even if anti-corruption novel is popular literature, it did follow the people's trivial curiosity which a popular literature try to satisfy. It does not remained just as political slogan. The anti-corruption novels are based on the reality.

In conclusion, the popularity of anti-corruption novel in China are influenced by governmental intentions to eradicate corruption, authors' creation spirit which fulfills the need of the times and readers. Therefore, the research of anti-corruption novel makes a opportunity to see a corruption problem from the various perspectives while the current studies of corruption are made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sciences.

Key words: Anti-corruption Movement, government, intellectuals, the public, main melody, popularization, artistry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 부산대학교 중문학과 강사

## I. 들어가며

2010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이어서 『왜 도덕인가』가 연이어 출판되었다. 정의니, 도덕이니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덕목인 진선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의 측면 곧, 공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시대의 화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부의 분배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며 동시에 정치적 차원의 것이며 또한 사회 정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경유착(혹은 신자유주의 폐단)으로 부가 부당하게 한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 『부당거래』, 드라마 『자이언트』 등이 대중의 인기를 끌었으며, 조정래의 소설 『허수아비 춤』과 김용철의 사회평론서 『삼성을 생각한다』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들 영화, 드라마, 소설, 평론서들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망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영화, 드라마, 소설, 사회평론서들보다 몇 배 더 극명하게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현실의 부패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파장 또한 몇 배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반부패소설[反腐小說]’이다.

반부패소설이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사회에 일기 시작한 반부패운동과 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에 힘입어 성행하기 시작한 소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부패소설은 사회의 부패현상을 폭로 비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십 여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문제작을 배출하면서 중국문단에서 주목하는 창작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십 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 출판된 반부패소설 작품은 1,000여 편이 넘으며, 이 중 현재 판매중인 작품만도 무려 488편이나 된다고 한다(邵筐, 2010). 반부패소설은 현재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정부의 반부패운동과 궤를 같이 하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문학, 중국문화현상, 나아가 중국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국의 반부패소설은 반드시 연구해야할 대상이다. 특히 반부패소설의 창작이 정부 주도의 반부패 운동에 호응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끝나지 않고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부패를 매개로 중국사회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부패소설의 중요한 가치와 연구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몇 편에 불과한 실정이다.<sup>1)</sup> 따라서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지닌 문학, 사회학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고도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부패소설의 유행은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려는 정부의 의도, 시대적 요구에 호응하려는 작가들의 창작정신, 그리고 독자대중의 문화적 수요가 일치함에 따라 말미암은 것으로, 당대 중국 문단과 문화계를 풍미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반부패소설의 흥행에는 중국정부, 일반 대중, 그리고 작가 지식인이라는 이 세 주체의 상호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출발하여, 정부주도의 주선율화, 대중의 심미요구에 따른 통속화, 지식인의 참여에 따른 예술화라는 각도에서 반부패소설의 흥성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반부패소설의 연구는 기존의 사회학적 측면과 다른 인문학적 차원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II. 정부주도의 반부패운동과 반부패소설의 주선율화

관료사회의 부패상을 폭로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부패소설은 넓은 의미에서 관장소설(官場小說)(서정희, 안승웅, 전금, 2012: 114)<sup>2)</sup>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것을 특별히 반부패소설이라 부르는 것은 반부패소설이 관장(官場, 관료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장의 부패의 양상 및 이것을 일소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주도의 반부패운동에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반부패소설이 대중화될 수 있게 출판, 미디어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 주도의 반부패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이 반부패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반부패소설이 어떻게 주선율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반부패소설의 흥성원인을 살펴보는 첫 번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 정부주도의 반부패운동

1946년 국공내전 발발 당시 재정 및 군사력 등 모든 방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었던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당

1)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반부패소설로는 『절대권력』(周梅森, 김진아 역, 길산, 2002)과 『창랑지수』(閻眞, 박혜원, 공빛내리 역, 비봉출판사, 2003) 등이 있으며, 반부패소설 관련 국내 연구로는 「반부패소설고」(서정희, 안승웅, 전금, 중국학, 2012), 「반부패소설연원고」(서정희, 동북아 문화연구, 2014), 「반부패소설 『창랑지수』를 통해 본 중국과 중국 지식인」(안승웅, 중국현대문학, 2014) 등이 있다.

2) 관장소설이란 관료사회의 권력투쟁 과정과 이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부패현상을 고발하는 것을 주요 묘사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말의 건책소설과 맞닿아 있다.

의 부정과 부패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곧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산당 조직 내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국 초기 삼반 오반 운동(黃寶玖, 2011)<sup>3)</sup>을 통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특유의 경제시스템과 공산당의 정치권력의 독점으로 인해 중국은 구조적으로 부정부패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부주도의 반부패 운동이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1980년대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부정부패는 더욱 심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유재산의 소유를 다원화하고 복제제도(왕중화, 2008: 37)<sup>4)</sup>를 실행하는 과정에 고위관료들이 개입하여 부패가 성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재개발과 농촌경지 정리가 진행되면서 금융, 건축, 부동산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성행하였다. 심지어 정부 기능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기구가 기업화하여 부패를 더욱 조장하기도 하였다(쑤리핑 저, 김창경 역, 2007: 227).<sup>5)</sup>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수익성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서 관료들의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처럼 부패가 갈수록 심화되자 중국공산당은 부패의 척결을 공산당과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2011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90주년 공식 기념행사 연설에서,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胡錦濤)는 “공산당이 생존하려면 부패를 척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中國新聞網」, 2011). 그리고 2012년 3월 초, 양회(兩會)를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은 허귀창(賀國強)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의 연설문을 공개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 2012). 2013년 중국의 새로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習近平) 또한 부패와의 전쟁을 국정의 첫 과제로 삼았다(「SBS」, 2013). 최근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군 저우용강(周永康)의 부패와 관련된 소식들 역시 부패척결이 ‘성역’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과 정부의 반부패 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반부패운동이 지닌 한계는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우선 이 반부패 운동이 상명하달식의 정부의 고위 간부의 입장 표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며, 반부패의 대상이 일부 특정 고위관료들에

3) 1951년 말에서 1952년 10월까지 추진된 중국정부의 반부패관련 조치이다. ‘삼반’은 당과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부패’, ‘낭비’,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오반’은 사영 상공업자를 대상으로 ‘뇌물’, ‘탈세’, ‘국영재산 편취’, ‘인력과 자재 속이기’, ‘국가경제 정보 누설’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개혁개방 초기 각 방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신구체제가 병존하고 있어, 두 가지 체도를 병행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격 복제제, 이율 복제제, 환율 복제제 등이 있다.

5)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정부기구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제3산업’을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그래서 정부가 회사를 설립하고, 경찰이 회사를 설립하고, 학교가 회사를 설립하고, 군대도 회사를 설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게 집중되어 있어 권력투쟁의 한 방편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호응과 각 방면의 자발적인 반부패 운동이 일어나야만 된다.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각 방면의 자발적인 반부패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반부패 운동만 부족한 것이다. 이에 반부패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90년대 이래 다양화된 출판문화 속에서 관료들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는 문학창작이었다. 이들 문학창작은 비록 국가기관 주요관료들의 치부를 폭로하고 있었지만, 대중의 호응과 반부패의 필요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들 창작을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중국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 주도의 반부패 운동이야말로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부패운동의 성공을 위해 대중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했고,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인의 반부패 소설의 창작을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2. 반부패소설의 주선율화

반부패 소설은 원래 권력의 부패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력의 견제를 받았었다. 출판 금지는 물론이고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3년에 발표된 장평(張平)의 『天網』의 경우 출판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다.<sup>6)</sup> 소설은 직권을 남용한 이들의 이권을 건들었기 때문에 몇몇 관리들이 연명으로 그를 법정에 고소하였다. 법정 다툼 기간에 장평은 2000여 통에 달하는 지지 서신을 받았고, 일부 농민들은 산서 벽지에서 북경으로 와 그를 성원하였고 또 일부 농민들은 돈을 모아서 소송에 도와주기도 하였다. 10년에 이르는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장평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처럼 공산당 관료의 부패상을 폭로비판한 반부패소설은 그 시작이 순조롭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부패의 척결 여부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됨을 강조하고 있던 중국정부는 『天網』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반향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반부패 소설 창작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반부패 소설은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이중 1997년에 출판된 『抉擇』의 경우 2000년 마오뚱(茅盾)문학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에 『生死抉擇』라는 영화로 재탄생하여 전국적으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즉, 권력을 견제하려했던 반부패 소설은 오히려 권력의 비호를 받고 국가적 지원 속에서 주선율 문화에 편입 된 것이다.

6) 새로 부임한 현위원회 서기 趙天祥은 우연히 30년 간의 법정다툼으로 가산을 탕진한 농민 李榮才를 만난다. 조천상은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사회 각 방면의 방해세력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영재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한다. 동시에 인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한 패거리들에 철저한 제재를 가한다.

주선율이란 통치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영화나 기타 문예작품을 가리키는 말로서, 통상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이나 당의 통치 노선에 의거하여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정신을 발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선율의 제작과 보급에는 통상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 뒤 따른다(서정희, 안승웅, 전금, 2012: 122).

주선율 문화에 편입됨으로써 작가의 창작과 출판시장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반부패소설의 흥성으로 이어졌다. 반부패 소설은 문단에서의 위치가 공고해졌고, 이는 우수한 창작으로 이어졌다. 루톈밍(陸天明), 장핑(張平), 왕웨이원(王躍文), 옌쩐(閻眞), 텐둥자오(田東照) 등과 같은 전문 반부패소설 작가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작품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였고, 일부 작품은 해적판이 나돌 정도로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었다. 2008년 중국 허난(河南)의 『紀檢與監察』라는 잡지에서 작가와 평론가를 초청하여 작품의 문학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10대 반부패소설을 선정한 바 있다.<sup>7)</sup> 『紀檢與監察』는 중국공산당 하남성 기율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잡지로서 이러한 선정 작업은 정부주도로 반부패소설을 주선율 문화의 하나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반부패 소설은 정부의 주도, 시대적 요구에 호응하려는 작가들의 창작정신과 그리고 독자대중의 문화적 수요가 일치하여 중국 문단과 문화계를 풍미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Ⅲ. 대중의 심미요구와 반부패소설의 통속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언론 출판 등은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일찍이 중국정부는 문학을 통해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1950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찬양하는 문학에서 196,70년대 문화대혁명시기 노골적인 어용문학까지 정부의 노력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해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였고, 대중의 수용이 없는 문학창작은 지속될 수 없었다.

그런데 반부패소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대중의 많은 환영을 받았다. 여기에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문학이 가지지 못했던 대중성과 대중의 심미요구를 반부패소설이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중의 심미요소가 무엇이며 반부패소설은 또 이것을 어떻게 대중화, 통속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반부패소설이 흥성할 수 있었던 원인을 파악하는 한 방법이다.

#### 1. 대중의 심미요구

7) ① 陸天明 『大雪無痕』, ② 張平 『抉擇』, ③ 周梅森 『中國制造』, ④ 王躍文 『國畫』, ⑤ 閻眞 『滄浪之水』, ⑥ 田東照의 『跑官』, ⑦ 汪宛夫 『機關滋味』, ⑧ 晉原平 『權力場』, ⑨ 張成功 『黑洞』, ⑩ 曹征路 『貪污指南』 등이다.

반부패소설 관련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인 『反腐小説의文化意蘊與價值 - 文化視野下法學與文學的交叉研究』에서 저자 동빈(董斌)은 반부패소설의 흥성원인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다. 첫째 사회적 원인이다.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부패한 사회현실에 대한 우려와 부패 해결에 대한 관심이 반부패소설을 흥성하게 하였다. 둘째, 문화, 심리적 원인이다. 권력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그리고 영웅숭배사상과 사필귀정에 대한 염원 등이 반부패소설을 흥성하게 하였다. 셋째, 문학 발전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이다. 90년대 이후 문학이 다양화되고 대중화되는 가운데 너무 통속화되자 현실주의 계열의 문학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董斌, 2007: 19-29).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하게 반부패소설의 흥성원인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 심리적 원인과 문학 자체에서 반부패소설의 흥성원인을 찾음으로써 문학과 문학,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반부패소설이 통속소설적 요소를 지니고 대중의 심미요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압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통속소설에 대한 사전적 정의로부터 시작해보자.

통속문학 : 문학적 교양이 비교적 낮은 일반 대중을 위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흥미 있는 소재에 중점을 두고 평이한 내용을 다룬 문학(신기철, 신용철 편저, 1987).

통속소설 : 대중은 진실과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며 관능과 감각적 가치에 탐닉하고자 하는 불건전한 성향을 가진다. ... 대중이 가지는 이러한 불건전한 성향을 충동하고, 대중의 무반성적인 기대와 취향에 영합하고자 하는 이야기 .....(한용환, 1992: 433).

이러한 통속문학이나 통속소설에 대한 정의에서 대중들의 심미요구 몇 가지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여야 한다. 둘째, 무의식적 무비판적이지만 대중의 가치지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부패소설은 바로 이러한 대중의 심미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부패소설은 대중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를 풍부히 지니고 있다. 재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반 대중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류사회의 삶을 동경하고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한다. 특히 그들의 권력암투나 문란한 성생활은 『三國志』나 『金瓶梅』에서 볼 수 있듯 역대로 대중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소재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고위 관료들의 권력암투나 그들의 문란한 성생활은 일반대중들이 한편으로 욕하면서 한편으로 동경하는 것들이다. 『國畫』, 『滄浪之水』 등과 같은 대다수의 반부패소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시의성이 짙은 사건들로 소재로 하며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내면세계까지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반부패소설은 대중의 가치지향을 담고 있다. 역사 이래로 부패한 관료들의 억압을 받아온 대중은 부패한 관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격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관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일찍이 『三俠五義』의 포청천과 같은 청렴한 관리가 나타나길 염원하며, 조금이라도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水滸傳』의 인물들처럼 그들을 영웅화 한다. 『蒼天在上』 『絶對權力』 등과 같은 반부패소설은 반부패투쟁에 앞장서는 영웅형상을 창조하여 부패한 세력을 물리치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준다.

셋째, 반부패소설은 일반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와 형식을 지니고 있다. 반부패소설은 대부분 ‘반부창렴(反腐創廉)’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선명한 선악대비, 흑백논리에 따라 주인공은 영웅화되며, 대중은 주인공의 부침에 함께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하며 사필귀정의 이야기 마무리에 안도의 숨을 내쉴다. 『中國製造』 『決擇』 등과 같은 작품들은 대중들이 익숙한 사필귀정,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다.

즉 반부패소설은 중국 대중이 좋아하는 고전소설이 지닌 통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제와 내용 면에서 대중들의 심미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 2. 반부패소설의 통속화

위에서 반부패소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대중들의 심미요구를 충족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반부패소설이 어떻게 통속화 된 내용과 형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동빈(董斌)은 그의 글에서 반부패소설의 유형을 ① 淸官형 작품, ② 전람, 폭로형, ③ 관장문화 비판형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통속화된 유형을 띠고 있어 일람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청관형 작품 : 독자의 환영을 많이 받았으나 평론의 비판 또한 가장 많이 받은 작품 유형이다. 평론가들이 반부패소설의 ‘주선율과 삼두마차’라 부르는 장평(張平), 루텐밍(陸天明), 주메이선(朱梅森)이 주로 이런 유형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 유형의 소설에서는 부패현상과 문제점 등이 한결 같이 포청천과 같은 청렴한 관리에 의해 해결된다. 하지만 완벽한 반부패 영웅형상을 창조시킴으로 ‘신삼돌출론’을 연상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② 전람, 폭로형 : 왕웨이원(王躍文)의 『國畫』처럼 권력자의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묘사하는데 치중하는 작품유형이다. 권력욕과 성적 욕망을 주로 묘사하기 때문에 반부패의식이 철저하지 않을 경우 흑막, 추리, 색정 문학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두 가지 반부패소설은 서사모식에 있어서도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속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모식 1 :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부패현상을 폭로 된다. 『決擇』의 경우 중앙방직공장의 도산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중앙방직공작을 도산하게 하고 이익을 챙긴 거대한 부패세력이 폭로된다. 『蒼天在上』의 경우 章台시의 시장의 수뢰혐의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성장이 개입한 부패현상이 폭로된다. 『十面埋伏』과 『大雪無痕』의 경우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부패세력이 드러난다. 『絶對權力』의 경우 국영기업의 수뢰사건을 계기로 시장과 부시장이 개입되어 있는 부패세력이 드러난다.

서사모식 2 : 부패와 반부패의 대립은 선악의 대립으로 단순화 되어 있고 부패 세력이 반부패 세력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 『決擇』의 경우 반부패 주인공인 리카오청(李高成)이 시장인 것에 비해 부패세력은 성 위원회 부서기인 옌첸(嚴陣)이다. 『蒼天在上』의 주인공 황장베이(黃江北)의 상대는 텐(田)부성장이며, 『中國製造』의 주인공 까오창허(高長河)의 상대는 성 위원회의 부서기인 마완리(馬萬里)이다.

서사모식 3 : 부패와 반부패 대립과정에서 반부패 세력은 직장, 가정, 건강, 생명과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決擇』의 경우 주인공 李高成은 부인을 법정에서 서게 하고, 『蒼天在上』의 경우 주인공 황장베이(黃江北)은 직장을 잃고 부인이 병사하게 된다. 『絶對權力』의 치첸청(齊全盛)의 딸은 전신이 마비되며 본인은 직장을 잃는다.

서사모식 4 :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결과, 부패세력보다 상위세력 고위 간부의 도움으로 결국 반부패로 대표되는 선의 세력이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획일적 결과는 주선을 작품들이 지니는 한계이지만 공권력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법률이 아직 완비되지 못한 중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결말 또한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중이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 IV. 지식인의 참여정신과 반부패소설의 예술화

정부의 지원, 대중의 환영 등으로 반부패소설은 흥행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 정치구호 선전, 통속화되어 예술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문학작품이 선전의 도구가 되고 통속화가 심화되면 자체의 생명력이 떨어져 곧 독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반부패소설은 반부패라는 주제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참여 정신이 풍부한 수많은 지식인들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현실의 충실하게 반영하는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 그리고 달라진 출판시장으로 인해 적지 않은 우수한 작품 또한 등장하였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예술적 성취가 있는 반부패소설의 등장으로 인해 반부패소설은 어용문학, 통속문학이라는 굴레에 갇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일시적 문학현

상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지식인이 어떻게 참여정신으로 가지고 반부패소설의 창작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는 데 빠져서는 안 될 한 요소이다.

## 1. 지식인의 현실 참여정신

중국 지식인은 전통유가사상의 영향으로 “천하의 사람보다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사람보다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는”<sup>8)</sup> 현실참여 정신을 자랑스러워했다. 사실 이러한 유가 사상에 입각한 지식인의 현실참여로 인하여 역대 봉건왕조는 통치제도를 개선해가며 봉건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근현대시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혼란한 시기에 중국 지식인의 현실참여는 더욱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5·4신문화운동 시기 수많은 청년지식인들이 갖가지 현실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공산당 창당에 관여한 지식인들은 결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공산당은 권력을 잡은 후 권력을 유지하는 한 방편으로서 지식인을 이용하고 통제하였다. 1942년 연안 정풍운동에서 시작된 지식인에 대한 통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문학 예술계를 예로 들면, 중화민국이 성립하던 해에 ‘중화전국문학예술계연합회’라는 조직이 만들어 졌고 이 조직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문인 예술가 지식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진 문인 예술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운동 또한 문인, 예술계 지식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sup>9)</sup> 이로써 문인들은 국가 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할 뿐 현실의 어두운 면이나 공산정부의 실정을 감히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雙百方針에 이은 反右派 투쟁은 지식인의 너리에 국가정책에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각인시켜 놓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문인과 지식인은 ‘아홉 번째 낚새나는 늙[臭老九]’으로 전락하여 박해를 받았다.

지식인의 사회참여가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왜곡되자 지식인의 고유의 사회비판 기능은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반우파 투쟁으로 수많은 지식인이 희생된 후 지식인의 사회비판적 기능이 상실되자 소수 정치인의 광적인 전횡, 즉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문인들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문단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지만, 공산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문인 지식인을

8) “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 (范仲淹, 『岳陽樓記』)

9) 1950-1951년의 영화 《武訓傳》에 대한 비판, 1954-1955년의 俞平伯의 《紅樓夢研究》에 대한 비판, 1955년의 ‘胡風 집단 비판’ 등이 있다.

통제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 문인들 또한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중국정부 공산당의 입장에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지식인의 현실참여 정신 비판정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왕명(王蒙)의 『組織部新來的青年人』은 1950년대 사회주의 실천에 나타난 관료주의, 권위주의, 보수주의, 무사안일주의 등과 같은 폐단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다. 장쯔룽(蔣子龍)의 『喬廠長上任記』는 1970년대 말 공업개혁의 현실을 직접 묘사하고 공업전선 분야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과오를 심각하게 폭로하였다. 1980년대 리우전원(劉震運)은 『單位』, 『官場』 등을 통하여 중국의 단위 조직의 권력이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농단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소설은 현실주의의 면모를 회복하고 소설의 현실성을 심화,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소설의 제재는 傷痕文學, 反思文學, 改革文學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줄곧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생활의 면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특성을 뚜렷하게 띄게 된다. 특히 개혁개방 후 사회의 부패가 심화되자 이를 지켜보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자기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사색을 하였고, 이것이 반부패 소설의 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 2. 반부패소설의 예술화

최근 20여 년 동안 수많은 반부패 소설이 창작되면서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판업계의 상업적 의도에 따라 조잡한 흥미위주의 폭로성 이야기를 강조한 작품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반부패소설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 여기에는 1990년 이래 달라진 중국사회의 문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문화는 다원화되었고, 문화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문학적 상상의 세계는 향촌에서 도시로 전향하였고 욕망의 묘사가 유행이 되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때 시대의식을 지니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사회의 부패현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 소설은 개혁개방 이래 단절될 수도 있었던 리얼리즘 계열의 문학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반부패 소설은 傷痕文學, 反思文學, 尋根文學, 改革文學에 이어 현실주의 문학이 지닌 생명력과 독특한 심미가치, 사회 참여적 특징을 심분 발휘하면서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즉, 현실주의 문학에서의 이러한 성취 때문에 반부패소설은 정치 구호화되고 통속화되는 일반적 경향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적 특수 상황 아래에서 반부패 소설의 현실주의 문학에서의 성취를 논하려면, 다시

말해 반부패소설이 현실주의 측면에서 예술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사회의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도서의 출판이 자유로운 출판환경의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작가군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부패소설은 예술적으로 성취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0년대 이후 달라진 출판 환경을 꼽을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1978년도부터 시작된 출판사의 개혁은 2004년도에 접어들면서 질적인 변화를 보인다. 2004년 중국정부는 人民出版社만을 공익사업 단위로 남기고 기타 모든 출판사를 점차적으로 경영형 기업단위(민영화)로 전환하는 조치를 치하였다(「中國新聞網」, 2004). 이러한 중국정부의 조치는 출판물에 대한 사전통제를 사후통제로 전환한 것이며 이로써 출판에는 이전과 다른 출판의 자유가 주어졌으며 동시에 거대한 출판시장 또한 형성되었다. 반부패소설이 고위관료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자유와 독자대중의 광범위한 지지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다양화되고 두꺼워진 작가군을 들 수 있다. 정부 주도와 대중의 환영으로 반부패소설이 흥성하자 수많은 작가들이 반부패소설의 창작에 동참하였다. 이들 중에는 장평(張平), 왕웨이원(王躍文)과 같은 고위관료 출신 작가도 있으며, 옌젠(閻眞)과 같은 대학에서 중국 현대대문학을 전공한 교수출신 작가도 있다. 이들의 『國畫』, 『滄浪之水』와 같은 작품들은 고위관료세계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이속에서 인성이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관본위 권력생태 중 당대 지식인은 어떠한 운명적 선택을 할 것인가? 관계의 “숨은 규칙”은 어떠한 문화를 배태시키고 있는가? 권력의 남용은 어떻게 일상생활 구석구석 침투해 어떻게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좌우하며 인성을 왜곡시켜 사람들 스스로 권력의 노예와 물욕의 노예에 이르게 하는가? 등에 대하여 깊은 사색을 진행하면서 작품의 예술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 V. 맺으며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튼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중국공산당은 60년 이상 독재를 하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 내 관료들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부패 문제는 공산당은 물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 문제가 되었다.

공산당은 부패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산당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반부패 소설을 통제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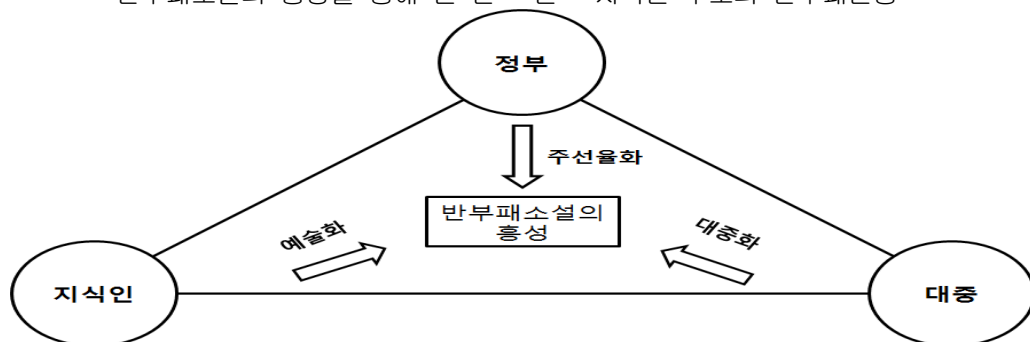
오히려 지원함으로써 부패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부패소설 작가들 또한 점차 대담하고 본질적으로 부패문제에 천착하게 되었고 다양한 반부패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 이에 반부패소설은 주류문화로 편입되어, 지난 세기 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의 주요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반부패소설이 중국에서 흥성하게 된 원인을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첫째, 반부패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와 반부패소설의 주선을 문화로의 편입이다. 반부패소설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반부패소설은 그 탄생에서부터 중국정부 주도의 반부패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부패운동의 성패여부가 당과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을 한 중국정부는 반부패운동의 성공을 위해 반부패소설의 창작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반부패소설 작가는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주요 작품들은 TV 드라마로 만들어지거나 영화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지원과 주선을 문화로의 편입이 반부패소설이 흥행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중의 심미요구와 반부패소설의 통속화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래 정부주도의 수많은 문학창작이 있었지만 반부패소설만큼 대중의 환영을 받은 문학은 없었다. 반부패소설은 내용상 독자대중의 흥미를 끄는 요소를 풍부히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권력의 폭력에 저항하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며 동시에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의식과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대중의 심미요구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지식인의 현실참여 정신과 반부패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들 수 있다. 반부패소설의 창작이 단순한 어용문학으로서 정치적 구호에 머물거나 통속문학으로서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에 영합하지 않았던 것은 현실주의 문학으로서 반부패소설이 지닌 리얼리즘 때문이었다. 그리고 20여 년간 반부패소설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특유의 현실주의 정신과 이에 부합하는 성공적 작품의 창작이 있었기 가능한 것이었다. 즉, 중국 지식인의 현실참여 정신과 현실주의 문학으로서 성취가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게 된 세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반부패소설의 흥성을 통해 본 관·민·지식인 주도의 반부패운동



결론적으로 부패소설의 성행은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려는 정부의 의도, 시대적 요구에 호응하려는 작가들의 창작정신, 그리고 독자대중의 문화적 수요라는 삼요소가 일치함에 따라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독자, 작가라는 세 가지 요소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당대 중국 문단과 문화계를 풍미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현상으로서 반부패소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반부패소설의 연구는 기존의 사회학적 측면과 다른 인문학적 차원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반부패소설의 흥성원인에 대한 규명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중, 지식인 작가의 역할은, 사회 곳곳의 적폐를 일소해야할 시대적 의무를 지닌 우리가 참조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신기철, 신용철 편저. (1987).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쑨리핑 저, 김창경 역. (2007). 「단절」. 부산: 2007.
- 한용환. (1992). 「소설학 사전」. 서울: 고려원.
- 黃寶玖. (2011). 「新中國反腐倡廉建設歷程」.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서정희, 안승웅, 전금. (2012). “반부패소설고”. 「중국학」 41집.
- 왕중화. (2008). “현대중국의 부패와 반부패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董斌. (2007). “反腐小说的文化意蕴与价值 - 文化视野下法学与文学的交叉研究”. 兰州大学博士学位论文.
- 邵筐. (2010). “反腐風潮催生熱門 ‘官場小說’ ”. 檢察日報. 2010.02.26.

###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12). 「中 공산당, 兩會 앞두고 부정부패 척결 강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20380>
- 윤영현. (2013). 「중국 시진핑의 첫 과제는 '부패와의 전쟁」」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304212407509>
- 中國新聞網. (2004). 「中国改革出版体制 仅1家出版社保留事业单位体制」.  
<http://www.chinanews.com/n/2004-04-06/26/421911.html>
- 中國新聞網. (2011). 「胡錦濤：反腐敗關係人心向背和黨的生死存亡」.  
<http://www.chinanews.com/gn/2011/07-01/3150372.shtml>

투고일자 : 2014. 12. 01

수정일자 : 2014. 12. 26

게재일자 : 2014. 12. 31

국문초록

## 民·官 그리고 知識人 주도의 반부패운동 -중국 반부패소설의 주선율화, 통속화, 예술화를 중심으로-

김 창 경(부경대학교)

안 승 웅(부산대학교)

본 논문은 중국의 부패문제를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반부패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반부패소설이 중국에서 흥성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반부패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와 반부패소설의 주선율 문화로의 편입이다. 반부패운동의 성패여부가 당과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을 한 중국정부는 반부패운동의 성공을 위해 반부패소설의 창작을 적극 지원하였다. 둘째, 대중의 심미요구와 반부패소설의 통속화를 들 수 있다. 반부패소설은 내용상 독자대중의 흥미를 끄는 요소를 풍부히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권력의 폭력에 저항하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의식과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중국지식인의 현실참여 정신과 반부패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들 수 있다. 반부패소설의 창작이 단순한 어용문학으로서 정치적 구호에 머물거나 통속문학으로서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에 영합하지 않았던 것은, 현실주의 문학으로서 반부패소설이 지닌 리얼리즘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반부패소설의 성행은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려는 정부의 의도, 시대적 요구에 호응하려는 작가들의 창작정신, 그리고 독자대중의 문화적 수요라는 삼요소가 일치함에 따라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부패소설의 연구는 기존의 사회학적 측면과 다른 인문학적 차원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반부패운동, 정부, 지식인, 대중, 주선율화, 통속화, 예술화